어바이어 코리아

LG CNS와 비지니스 파트너쉽

▲ 마크 리 어바이어 아태지역 사장(사진 오른쪽)과 정병철 LG CNS 대표가 비즈니스 파트너쉽 체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어바이어코리아와 IT 서비스 선도기업인 LG CNS가 비즈니스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양 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쉽 체결은 IP 텔레포니, IP 컨택센터 솔루션을 포함한 어바이어 전 제품군에 대한 SI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공분야 및 LG CNS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시 어바이어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IP텔레포니 및 IP 컨택센터 분야 시장개척을 위한 사업협력, 기술 및 마케팅 지원, 글로벌 사업추진 협력, 적극적인 사업협력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양사는 아태지역내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협조, 시장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쉽 체결로 양 사는 향후 파일럿 시스템 개발 및 데모 센터 운영, 기술인력 교육 등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LG CNS의 정병철 대표는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쉽 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고 한 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며 "통신분야에서 어바이어의 앞선 기술력과 LG CNS의 IT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역량을 결합시켜 대기업, 공공기관 등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쉽 체결에 대해 디네쉬 말카니 어바이어 코리아 사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IP 텔레포니, IP 컨택센터 시장에서 각각 솔루션과 서비스 업체로서 전문 영역을 공고히 갖고 있는 양 사가 이번 제휴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즈니스 파트너쉽 체결식에는 마크 리 어바이어 아태지역 사장과 LG CNS의 정병철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에 LG CNS 본사에서 진행됐다.

최근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 발표한 2003년 1분기 국내 IP PBX 시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바이어가 시장점유율 45.5%로 1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니퍼 네트웍스

콜러브리스 네트웍스와 아태지역 핫스팟 사업을 위한 파트너쉽 체결

주니퍼네트웍스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선랜 핫스팟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콜러브리스 네트웍스(Colubris Networks)와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콜러브리스 네트웍스는 대형 캐리어 핫스팟 사업자들과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위한 802.11(Wi-Fi) 무선 네트워킹 솔루션 공급업체이다.

주니퍼와 콜러브리스의 파트너쉽으로 서비스 사업자들은 신속하게 광범위한 지역에 핫스팟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얻게 됐다.

주니퍼 네트웍스의 E 시리즈 플랫폼과 SDX-300 서비스 구축 시스템은 여러 개의 핫스팟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가장 경제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PWLAN(Public Wireless LAN) 솔루션들은 각각의 핫스팟에서 일일이 액세스 포인트와 게이트웨이를 설치, 컨피규레이션, 관리해 주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이로 인한 분산된 네트워크는 서비스 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복잡한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니퍼 네트웍스와 콜러브리스 네트웍스의 파트너쉽을 통해 제공되는 PWLAN 솔루션은 사용자 인증과 서비스 크리에이션을 사업자의 IP 네트워크 상에 있는 소수의 플랫폼들에서 중앙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관리가 현격하게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대폭 절감된다.

또한 대역폭 보장, 보안 VPN, 프리미엄 로케이션, 스트리밍 컨텐츠 등과 같은 최신 서비스들을 PWLAN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빛스타즈

MF와 본격 의류 스폰서십 체결

한빛소프트 프로게임단 한빛스타즈가 유명 힙합 브랜드 'MF'와 본격 의류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그동안 게임이나 컴퓨터 장비 등에 국한됐던 스폰서십의 한계를 벗어나 주로 연예인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의류 및 액세서리의 스폰서가 이제 프로게이머에게도 본격적으로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프로게이머가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노출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프로게이머는 이제 10대들이 열광하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선망하는 직업군으로 떠올랐다.

MF의 조진현 실장은 "박정석, 강도경 등의 프로게이머가 유명 힙합 그룹보다 열 배 이상의 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게임을 좋아하는 팬들이 대부분 10대와 20대로 이뤄져 있고 힙합을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노출이나 인지도 면에서 서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MF는 현재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순수 힙합 브랜드이며 보아 등 유명 연예인의 의상을 지원하고 있다. 한빛스타즈 이재균 감독은 "최근들어 컴퓨터 주변기기 외에도 액세서리나 패션 브랜드 업체들의 스폰서 제의가 늘고 있다"며 "선수들이 리그를 비롯, 방송일이 많기 때문에 의류 스폰서는 프로게이머들에게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빛스타즈는 MF에서 제작한 힙합스타일의 새로운 유니폼을 선보였으며, 23일 올림픽공원에서 온게임넷 KTF EVER 프로리그 결승전을 펼친다.

액토즈소프트-성대

'미르의전설 2' 분쟁타결 … 180억원 입금

약 1년여에 걸쳐 어려움을 겪어온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2'를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성대간의 분쟁이 마침내 타결됐다.

미르의전설 2의 국내외 판권을 보유한 액토즈소프트는 지난달 이 게임의 중국 서비스를 담당하던 상하이 소재 온라인게임업체 성대와의 로열티 분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성대측이 라이선스료로 400만달러를 지급하고 총매출액의 21%를 로열티로 내는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하는데 19일자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 타결에 따라 성대는 1,500만달러가 넘는 미지급 로열티를 액토즈측에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대는 지난달 22일 미지급 로열티 가운데 180억원을 입금했으며, 이달 중 120억원을 추가 입금할 예정이다.

성대는 지난 2001년 6월 액토즈와 계약을 체결해 '미르의전설 2'의 중국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지난해 가을부터 불법서버 출현의 책임소재와 기술지원 미비 등을 문제삼아 로열티 지급을 미뤄왔다.

로열티 미송금 사태가 지속되자 액토즈는 이를 이유로 올해 1월말 계약해지를 성대측에 통보했으나 성대측은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강행해왔다.

당초 체결된 계약의 만료일은 내달 28일이었으나 이번 분쟁타결과 계약연장으로 성대는 미르의전설 2(중국 현지명 傳奇)의 중국내 서비스를 올 10월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게임업체인 위메이드가 개발하고 액토즈소프트가 출판권을 보유한 미르의전설 2는 최대동시접속자수 70만명이라는 기록을 가진 세계 최대의 온라인게임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성대와의 분쟁이 해결돼 이번에 약 300억원이 입금될 예정이며 그동안 공개시범서비스를 진행했던 성인용 온라인게임 A3의 국내외 상용화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액토즈소프트의 총매출액과 순익은 각각 600억원과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중국 성대측의 천탠쵸 대표는 중국 기자들과의 회견을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지난 6월에 마련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며 "지난달까지 밀려 있는 1,000만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모두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상태이며 로열티 지급을 잠시 보류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AMD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IA 사업부 인수

AMD가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IA(Information Appliance) 사업부 자산을 인수하기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 계약 체결로 AMD는 PCS(Personal Connectivity Solu-tion) 그룹 제품 계열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AMD는 이번 인수의 조건에 따라 Geode(지오드) 마이크로프로세서 제품군들로 주로 구성된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특정 지적 자산과 자산을 인수하게 된다. 또한 IA 사업부의 약 132명의 직원들이 AMD PCS 그룹에 합류하게 될 예정이다. AMD의 사장 겸 CEO인 헥터 루이즈(Hector Ruiz)는 "AMD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데스크톱 및 서버에 이르기까지 공용의 업계 표준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 전문 자원 및 전략적 비전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MD는 이번 인수를 통해 씬 클라이언트, 스마트 디스플레이 및 셋톱 박스 시장에서 Geode 제품군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Geode 제품군에는 전력과 성능이 최적화된 임베디드 x86 프로세서로 개발된 통합 실리콘과 시스템 솔루션 세트가 있다.

엔비디아

모바일 시장 확장 위해 미디어큐社 인수

세계적인 그래픽 프로세서 업체인 엔비디아는 최근 무선 모바일 장비용 그래픽/멀티미디어 솔루션 업체인 미디어큐(MEDIAQ)사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엔비디아는 기존 PC 시장을 넘어 무선 모바일 시장에서의 플랫폼과 기술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 사 협의에 따라 엔비디아는 7,000만달러 상당의 현금 혹은 엔비디아 주식으로 미디어큐를 인수하게 되며, 인수 작업은 엔비디아 회계연도 2004년 3/4 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는 양 사 이사회의 승인을 마친 후, 규제 조항과 기타 결산 관련 조항의 이행을 남겨두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미디어큐는 비주얼 디스플레이 기능을 향상시키며, 칩과 시스템에서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켜 주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계 (MS 포켓PC, MS 스마트폰, 팜, 심비안)를 위한 드라이버와 OEM의 출시일정을 단축해주는 API 등이 포함된다. 미디어큐의 타겟 시장은 3G와 2.5G 휴대폰, PDA, LCD 디스플레이 및 기타 무선 장비 시장이며, 주요 고객사들은 미쯔비시, 필립스, 지멘스, HP, 팜, 필립스 샤프, 소니 등과 같은 유수의 휴대폰 및 PDA 업체들이다.

메이힐

국내 최초 뮤직비디오 온라인 다운로드 판매 실시

보아, 강타, 슈, 플라이투더스카이 등 국내 최고의 인기뮤지션의 뮤직비디오를 내 PC에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된다. 바탕화면 동영상 다운로드 전문 사이트 메이힐을 이용하면 어떤 사이트에서도 다운받을 수 없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 15일부터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뮤직비디오 전문 사이트인 ilikepop(www.ilikepop.com)에서도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1곡당 다운로드는 1,200원 정도.

이 다운로드 서비스는 인접저작권자인 판당고 코리아는 물론이고 저작권 관련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도 합의를 마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시비에서도 자유로운 상태이다. 메이힐의 이런 시도는 뮤직비디오 형태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음악을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개 상황에 따라 향후 유료 인터넷 음악 시장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메이힐의 서비스가 많은 대중에게 호응을 받을 경우 현재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음악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음악 유료화를 실시하면서 온라인 음반 유료화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메이힐 뮤직비디오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화질의 뮤직비디오를 PC의 바탕화면에서 Full Size로 감상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보고싶을 때 감상 할 수 있게 돼 깨끗하지 못한 화질과 스트리밍 감상에서 오는 답답함을 깨끗이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메이힐 전대영 사장은 "저작권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저작권료 및 인접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유료로 다운로드 서비스함으로써 온라인 음반시장의 새로운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누소프트

온라인게임 '가약스' 중국 수출

한글과컴퓨터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 게임개발업체 고누소프트가 지난달 20일 이 회사가 개발할 예정인 온라인게임 '가약스'를 중국 완샹통신유한공사에 수출하기로 했다.

이번 수출의 계약금은 130만달러, 로열티 비율은 총 매출액의 30%이다. 3차원 MMORPG인 가약스의 중국 상용서비스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으며 연간 예상 매출액은 3,600만달러여서 고누소프트는 내년부터 매월 10억원 가량의 로열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샹의 주력사업은 이동통신 단문문자메시지(SMS),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 게임 유통사업 등이다.

고누소프트는 내달께 가약스의 국내 공개시범서비스를 시작해 올해안으로 유료화할 계획이다. 박홍호 고누소프트 대표는 나모인터랙티브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고누소프트의 전신(前身)인 아바트론을 창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으며 한글과컴퓨터는 이달 중순 그를 한글과컴퓨터 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고누소프트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대원씨앤에이홀딩스

'신암행어사' 한일합작 만화영화로 제작

한국 만화를 원작으로 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한 · 일합작으로 만들어진다.

대원씨앤에이홀딩스와 캐릭터플랜은 지난달 서울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개막식에 앞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일본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공동으로 애니메이션 '신암행어사'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00년 초 창작애니메이션 '건드레스'가 한 · 일합작 애니메이션 1호로 선보이기는 했으나 한국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양국합작으로 제작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경일 그림 · 윤인완 스토리의 원작만화 신암행어사는 패망한 가상의 국가 '쥬신'의 암행어사 '문수'가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를 처단한다는 것이 기둥 줄거리로 일본의 만화잡지 '선데이GX'와 한국의 '영 챔프'에 동시에 연재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재만화 인기순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5권까지 출간된 단행본도 권당 20만부 이상 판매되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애니메이션 신암행어사는 포켓몬스터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든 OLM과 SICAF 개막작 망치의 제작사 캐릭터플랜이 공동으로 제작해 내년 가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개봉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원작만화 판권을 갖고 있는 대원씨앤에이홀딩스가 캐릭터플랜과 함께 참여하며, 일본에서는 선데이GX를 발행하는 쇼가쿠칸(小學館)을 비롯해 이마지카 엔터테인먼트, 닛쇼이와이(日商岩井), 클록웍스, 하쿠호도(博報堂) 등이 참여했다. 순수제작비는 30억원 규모로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70%와 30%를 분담할 계획이다.

웹젠

2/4분기 매출 146억원, 경상이익 107억원

온라인게임업체 웹젠의 2/4분기 매출액이 14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영업이익은 80억원으로 지난 1/4분기보다 9.0% 감소했으나, 경상이익은 107억원으로 18.7% 증가했다.웹젠의 2/4분기 매출액 중 26억원은 중국 등으로부터 받은 로열티 매출로 전분기보다 10.4% 증가했으며 119억원은 인터넷을 통한 게임 서비스 매출로 12.4%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74.9% 늘어났으며 이중 인터넷 매출은 226억원, 로열티 매출은 50억원이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168억원, 경상이익은 1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8.4%, 190.5% 증가했다. 이 회사는 상반기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올해 예상 매출액을 550억원에서 582억원으로, 예상 영업이익을 332억원에서 36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올해 경영실적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성대

중국 최대 게임업체 국내사무소 개설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게임업체가 다음달 한국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上海)에 본사를 둔 성대네트워크(대표 천탠쵸)는 최근 올 하반기중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 한국 업체들이 개발한 각종 게임 콘텐츠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설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10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성대측은 설명했다.

성대측은 "올해 해외 콘텐츠 확보를 위해 최소한 1,000만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중 일부는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과 계약하는데 사용하겠지만 상당부분은 한국업체들의 온라인게임과 게임포털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당장은 한국 콘텐츠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업체들과 접촉하는 것이 주된 업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업체의 콘텐츠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2'를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성대는 이 게임으로만 최대 동시접속자수 70만명을 기록하면서 월 매출이 500만~600만달러에 이르는 중국 최대 온라인게임 유통사로 떠올랐다. 성대는 '미르의전설 2' 외에도 CCR의 '포트리스2', 넥슨의 '비앤비', '크레이지아케이드', '텍티컬 커맨더스', 태울의 '신영웅문' 등을 중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다.